

통속화의 경로*

강 현 국**

요약

이 논문은 「무화과」 이후 염상섭 소설의 변모 양상을 고찰한다. 신문 연재의 방식으로 발표된 염상섭의 소설은 통속성을 고려하면서 식민지 현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려 했다. 그로써 한 작품 안에 통속소설의 경향과 본격소설의 경향이 동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속적인 요청에 부응하면서 본격소설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방법적 기조는 「무화과」까지 유지되었다. 일제의 검열로 이념 관련 주제를 다룰 수 없게 되자 통속소설을 쓰는 일만 허락되었다.

염상섭은 「무화과」 이후 들어선 통속화의 길에서 「백구」와 「모란꽃 필 때」와 「불연속선」을 차례로 썼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 세 편도 연애 서사를 통해 통속성을 추구했으나 성취의 면에서 서로 차이를 드러냈다. 「백구」의 연애 서사는 통속적인 진행을 앞두고 저지된다. 사실주의를 고수하려는 작가의 자의식이 연애에 대한 낭만적 이상화를 용인하지 않은 것이다. 「백구」의 시행착오가 「모란꽃 필 때」의 서사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듯하다. 「모란꽃 필 때」에서 연애는 낭만적인 이상화의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로 다뤄진다. 이기적인 욕망들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연애의 방향이 모색되고 남녀 주인공이 바로 그 방향의 출발선에 도달하면서 작품은 끝난다. 「모란꽃 필 때」에서 출발선에 이른 연인들의 연애 서사가 「불연속선」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불연속선」의 연애 서사는 청춘 남녀의 만남으로 시작하여 그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연애의 여러 과정을 흥미롭게 전개한다. 갈등이나 오해는 적절한 선에서 해소되고 위기는 수월하게 극복되면서 서사는 행복한 결말로 향한다. 통속적인 기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된 것이다. 통시적으로 배열된 「백구」와 「모란

*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꽃 필 때」와 「불연속선」에서 염상섭이 통속소설에 정착하지 못하는 과정이 파악된다. 시간상 나중에 발표된 작품일수록 통속소설로서의 면모가 분명해진다. 「백구」는 본격소설은 물론이려니와 통속소설로서도 미흡했다. 「모란꽃 필 때」가 그보다 통속소설다웠고 「불연속선」이 온전한 통속소설에 도달한 양상을 보인다.

염상섭은 「불연속선」에서 통속소설로서 높은 완성도를 성취한 후 소설을 더 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듯하다. 그에게 통속성은 수단이자 전략이었다. 전적으로 통속성을 목표로 삼은 소설 쓰기의 성취가 그에게 만족스러울 수 없었을 것이다. 「불연속선」 이후 그는 소설 쓰기를 중단하고 만주로 갔다.

주제어: 모란꽃 필 때, 백구, 불연속선, 연애, 염상섭, 통속성, 통속소설

목차

1. 서론
2. 「백구」, 선부른 시도의 귀추
3. 「모란꽃 필 때」, 현실적 이해로서의 연애
4. 「불연속선」, 통속 연애소설의 완성
5. 결론

1. 서론

염상섭의 소설에서 연애 서사는 통속성을 구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통속성은 그의 소설 대부분이 신문에 연재되었다는 사실과 직접 관련된다. 대중 매체로서 신문이 지닌 속성을 거기에 연재되는 소설이 외면하기 어렵다. 독자의 호응도는 연재의 지속 여부와 직결될 뿐 아니라 차기작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속성이 신문 연재소설이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사 재직 경력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염상섭은 신문 연재소설이 처한 현실에 익숙했기에 자신이 연재하는 작품이 통속적인 경향을 띠는 데 대해 거리낌이 없었다. 독자의 수준

을 생각해 통속소설을 쓸 작정이라는 소회를 밝혔고 통속소설이 본격소설로 진행하기 위한 앞 단계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¹⁾

통속소설을 공공연히 옹호했다고 염상섭이 그 방향의 소설 쓰기에 주력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통속성은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이자 전략이었다. 전술한 대로 통속성은 신문이라는 현실 매체와 타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독자의 수용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속성이 고려되어야 했다. 「만세전」의 작가로서 염상섭이 지닌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신문 연재소설을 쓴다고 퇴보한 것은 아니다. 그는 통속이라는 경로로 들어선 독자에게 식민지 현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했기에 연애 서사와 더불어 이념 주제의 서사를 전개했다. 사회주의자들의 신념과 주장이 소개되었고 그들이 항일 투쟁을 모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노출되었다. 그로써 한 작품 안에 통속소설의 경향과 본격소설의 경향이 동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두 경향의 작품 내적인 비중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랐다. 「삼대」가 본격소설 쪽으로 기울는 데 반해 「광분」과 「이심」은 통속소설 쪽으로 기울는 양상이었다. 「사랑과 죄」와 「무화과」에서는 양자가 대체로 절반씩의 비중을 형성했다.

통속적인 요청에 부응하면서 본격소설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방법적 기초는 「무화과」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일체의 검열로 이념과 관련한 표현이 불가능해지자 염상섭에게 통속적인 수단만 남게 되었다. 통속소설을 쓰는 일만 허락된 셈이었다.²⁾ 「무화과」 이후 발표된 「백구」와 「모란꽃 필 때」 「불연속선」이 그러한 정황을 확인해 준다. 통속소설과 본

1) 염상섭은 “소위 신문소설, 통속소설을 쓸 때에는” 독자의 수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중학교 3, 4학년 생도의 정도를 표준으로 통속소설을 쓴다.”고 스스로 밝혔다. 김경수, 염상섭이 통속소설을 본격소설의 전 단계로 간주했다고 판단했다. 염상섭, 『염상섭 문장전집』 1, 한기형·이혜령 편, 소명출판사, 2013, 698면;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145면.

2) 그 정황을 김윤식은 “심퍼다이즈가 더 이상 끼어들 수가 없는 형편에 직면한 염상섭 소설은 심각미를 떨 수가 없다. 통속적·대중적인 소설, 곧 흥미 중심의 소설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603면.

격소설이 동거하는 경우 본격소설의 작품 내적 비중에 따라 후대의 평가가 갈렸다. 「삼대」가 가장 후한 평가를 받았고 「사랑과 죄」와 「무화과」 「이심」 「광분」의 순서로 평가가 점차 박해졌다. 본격소설에서 더 떨어진 「무화과」 이후 작품들에 대한 평가도 그 추세를 따라 부정적이었다. 김윤식은 「백구」가 추상성의 상태에 떨어졌으며 「모란꽃 필 때」는 ‘그 나뭇의 통속적 수준을 유지한 것’인데 비해 「불연속선」은 염상섭이 ‘작가적 고차」임을 수증한 작품이라고 혹평했다.³⁾ 이보영은 “「백구」에서 통속소설적인 경향을 짙게 보이더니 「모란꽃 필 때」부터의 세계는 분명히 통속소설적이다.”고 했다.⁴⁾ 「백구」와 「모란꽃 필 때」와 「불연속선」을 통속소설로 판단한 선행연구의 인식을 전제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경수는 「백구」와 「모란꽃 필 때」와 「불연속선」의 현실 묘사에서 시대적 의의를 읽어내고자 했다.⁵⁾ 김용희는 「모란꽃 필 때」와 「불연속선」에서 식민지 자신의 병적인 면모를 독해했으며⁶⁾ 김문정은 「불연속선」에 나타난 당대의 면모들에 주목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평가가 재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⁷⁾ 유봉희는 「모란꽃 필 때」가 비록 통속소설이지만 엄혹한 검열 속에서 시대상을 담아내려고 분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⁸⁾ 김병구는 「백구」와 「불연속선」에서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회구하는 염상섭의 서사적 욕망을 읽었고⁹⁾ 김승민은 「모란꽃 필 때」에 나타난 연

3) 위의 책, 599, 611, 820면.

4)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423쪽. 이보영은 「모란꽃 필 때」가 통속소설임에도 염상섭의 반일 감정이 표출된다고 보았다. 위의 책, 526-528면.

5) 김경수, 앞의 책, 5, 6장 참조.

6) 김용희, 「염상섭 소설의 도시인식」, 『어문연구』 31-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12.

7) 김문정, 「「불연속선」에 나타난 사랑의 서사와 풍속」, 『한국문예비평연구』 2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8) 유봉희, 「염상섭 장편 「모란꽃 필 때」 연구」, 『어문논총』 20,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9.8.

9) 김병구, 「염상섭 장편소설 「백구」의 정치사학적 특성 고찰」, 『국어문학』 58, 국어문화회, 2015.2; 김병구, 「염상섭 장편소설 「불연속선」 연구」, 『우리문학연구』 45, 2015.1.

애의 삼각관계를 논의했다.¹⁰⁾ 「백구」와 「모란꽃 필 때」와 「불연속선」에서 긍정적인 면을 추출하여 통속소설 이상의 의의를 읽어내려는 시도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엽적인 가능성에 연구자의 기대를 투사하는 정도에 그쳤다.

선행연구에서 통속소설로 한데 묶여 저평가된 「백구」와 「모란꽃 필 때」와 「불연속선」은 이념적 주제를 배제한 통속소설 쓰기가 염상섭에게 수월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염상섭이 통속소설에 연착륙하지 못하는 과정이 그 작품들의 통시적 배열에서 파악된다. 시간상 나중에 발표된 작품일수록 통속소설로서의 면모가 분명해진다. 「백구」는 본격소설은 물론이려니와 통속소설로서도 미흡했다. 「모란꽃 필 때」가 그보다 통속소설다웠고 「불연속선」이 온전한 통속소설에 도달한 양상을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통속소설이라는 동일 범주로 처리된 작품들의 차이와 변이를 살필으로써 「무화과」 이후 염상섭 소설의 전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백구」, 선부른 시도의 귀추

「백구」는 도입부의 설정을 통해 연애소설로서의 종적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젊은 남녀의 연애가 기성세대의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위기에 처한다는 식의 설정은 연애소설에서 흔하다. 백화점 점원인 원랑은 소학교 교원 박영식을 사랑하지만 이형식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 원랑과 결혼하려 한다. 원랑의 모친은 부유한 사위의 덕을 보려는 심산으로 딸을 형식에게 시집 보내려 한다. 원랑과 영식의 연애는 감정의 순도가 높아서 순수하다고 인정될 만하다. 그들은 모두 가난한 처지여서 서로에 대한 감

10) 김승민, 「염상섭 「모란꽃 필 때」 연구」, 『현대문학이론』 6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12.

정에 다른 계산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형식은 원랑의 모친과 협력하여 일종의 매매혼을 추진함으로써 원랑과 영식의 연애를 방해한다. 남녀 주인공이 방해자들에 맞서 그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통상의 연애소설에서 기대되는 과정이다. 영식과 헤어져서 중년의 유부남인 형식의 재취가 되는 일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어서 원랑은 모친에게 거세게 저항한다. 그런데 영식은 통상의 연애소설에 등장하는 남주인공답지 않게 곤경에 처한 원랑을 돕지 않는다. 영식은 자신에게 피신한 원랑이 그녀의 모친에게 붙잡혀 가도록 방관한다. 가출한 원랑과 용산역 대화실에서 다시 만나 인근을 산책할 때도 영식은 원랑에게 귀가를 종용한다.

원랑이 영식에게 하는 구조 요청은 연애 서사가 진전되기 위한 계기이기도 하다. 그 계기는 세 차례에 걸쳐 제기된다. 전술한 원랑의 피신과 가출이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계기이다. 세 번째 계기는 원랑이 형식과 결혼하고 한 달 후 그녀가 영식에게 보낸 편지이다. 그중 한 번이라도 원랑의 요청을 영식이 수락한다면 연애 서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조성된다. 그런데 영식은 원랑의 요청을 번번이 외면한다. 특히 둘째 계기에서는 도피 자금까지 마련된 상태이다. 원랑은 형식이 결혼 준비 용도로 모친에게 건넨 돈 중 일부를 훔쳐서 가출한다. 모친의 강압으로 백화점을 그만둔 날 밤 원랑은 반사적으로 무작정 영식의 집으로 도피한 데 비해 그 이튿날 그녀의 가출은 계획된 것이다. 영식은 자신의 사주로 원랑이 형식의 돈을 훔쳐 도망쳤다는 소문이 날 거라고 말하여 그녀를 절망에 빠트린다. 원랑은 형식과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우연히 영식과 재회한다. 그 재회에서도 영식이 원랑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음에도 원랑은 여전히 처녀의 몸을 유지한다. 신병을 핑계로 형식의 접근을 막은 탓이다. 순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처녀성은 여성의 결혼 자격과 직결된다. 영식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원랑에게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 우연한 재회 이후 영식에게 보낸 편지에서 원랑은 자신의 순결을 암시한다. 영식은 원랑이 아직 처녀의 몸이라는 사실을

혜숙에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원랑의 마지막 구조 요청마저 응하지 않는다.

영식과 원랑의 연애 서사는 세 차례나 진전의 계기에 이르러서 번번이 중단된다. 그 중단의 배경에는 사실주의자로서 염상섭이 견지해 온 입장이 자리한다. 영식이 원랑과 도피하는 전개는 사실주의자인 염상섭에게 용납되기 어렵다.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은 그 도피의 실현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 원랑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영식이 하는 변명은 사실주의자로서 염상섭의 판단을 대변한다. 객관 현실에 충실한 염상섭의 입장으로는 이광수의 「재생」이나 「유정」 같은 작품을 결코 쓸 수 없다. 비현실적인 열정을 이상화하기보다 그러한 열정의 허망함을 다루는 일이 염상섭에게 오히려 익숙했다. 염상섭이 설령 사실성의 훼손을 무릅쓰고 원랑과 영식이 도피하는 방향의 서사를 고려했다더라도 그로부터 예견된 결과를 우려했을 법하다. 원랑과 영식이 벌이는 애정의 도피는 여러 흥미로운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다. 것처럼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서사는 통속성을 떨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백구」 이전까지 염상섭의 소설에서 통속성은 수용자를 주제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이념 관련의 주제를 소설에서 더 다룰 수 없게 되자 통속성이 수단에서 목적의 자리로 옮겨오는 사태가 벌어진다. 적대적인 여건 속에서 진행된 청춘 남녀의 연애 서사는 통속성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념 관련의 주제가 엄존한 경우에 회피되었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연애 서사가 세 차례나 진전의 계기까지 이른 데에서 연애소설을 쓰려는 염상섭의 의도가 드러난다. 그 계기에서 연애 서사를 번번이 중단시킨 데에서는 소설의 사실성과 통속성에 대한 염상섭의 원칙이 읽힌다. 연애소설을 쓰려는 의도와 그 의도를 저지하는 원칙 사이에서 염상섭은 원칙을 선택한다. 그 선택의 이면에는 사실성을 훼손하고 통속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연애소설을 쓸 수 없다는 염상섭의 판단이 자리한다. 염상섭은 이

념을 배제한 연애소설을 기획하고 착수했으나 그 진행 과정에서 통속성의 문제가 불거지자 사실주의자를 고수하는 선택을 한다. 따라서 원랑과 영식의 연애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백구」의 전반부를 통속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작품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염상섭이 작가로서 고수한 입장이 연애 서사의 통속적인 진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통속소설이라는 선입견을 접고 「백구」의 전반부를 검토하면 본격소설다운 면모가 파악된다. 우선 영식의 내면 서술이 주목될 만하다. 원랑의 요청을 거부하는 영식의 심리는 자기변명과 자책 사이를 어지럽게 오간다. 영식은 현실적인 여건과 교사인 자신의 신분을 거부의 이유로 드는 한편 원랑의 진심을 의심하기도 한다. 형식과의 결혼이 결정된 데에는 원랑의 책임도 있다면서 영식은 자신을 정당화한다. 그럼에도 영식은 원랑을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한 마음이 확인될 때마다 영식은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원랑을 향한 그리움을 토로한다. 모순되고 불합리한 데다 치졸하기까지 한 영식의 내면은 고백체를 통해 작중에 생생하게 전개된다. 혜숙이 삼각연애의 한 축으로 설정되지 않음으로써 「백구」의 연애 서사가 통속성을 피한 면도 거론되어야 한다. 혜숙은 영식에게 호감이 있고 원랑을 질투하기도 하지만 원랑의 연적으로 비치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원랑과 영식의 관계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도 혜숙은 영식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타산에 밝은 혜숙에게 가난한 영식이 마땅한 신랑감일 수 없으며 연애와 결혼이 삶의 전부도 아니다. 혜숙은 연애를 유희의 하나로 여기며 결혼은 물질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할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주장이 분명한 혜숙의 태도는 그녀를 통속적인 삼각연애의 구도에서 비켜서게 할 뿐 아니라 당대 세태에 닿아 있기도 하다.

「백구」 전반부의 연애 서사는 원랑이 형식과 결혼함으로써 내적 동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종료된다. 혜숙과 은희가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벌이는 토론은 그 지점까지 진행된 서사에 내포된 의미를 설명한다. 작중인물

들 간의 토론으로 주제와 관련된 의미를 서술하는 방식은 염상섭의 고유한 창작 방법인데 「백구」에서도 원랑과 영식의 연애 서사를 정리하는 순서에 사용된다. 그 선에서 마무리되었다면 「백구」는 당대 청춘 남녀의 연애관과 결혼관을 다룬 세태소설로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백구」는 그 지점을 지나서 계속된다. 원랑이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우연히 영식과 재회하는 사건은 내적 동력이 소진된 연애 서사를 억지로 연장한 정도 이상의 의의를 지니기 어렵다. 기혼녀인 원랑이 처녀의 몸이라는 정보가 긴장감을 조성하지만 결과적으로 연애 서사는 담보상태에 머문다. 것처럼 결말 부분을 무리하게 연장하고 나서도 「백구」에는 종지부가 찍히지 않는다. 소설적 완성보다 신문 연재라는 현실적 조건이 종지부를 허락하지 않은 듯하다. 연재는 계속되어야 했고 일단락된 연애 서사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서사가 시작된다.

연애 서사를 진전시킬 여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고려된 대안이 이념과 관련한 서사이다. 그 대안이 연재 도중의 조치였음은 「백구」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불연속적인 관계가 입증한다. 「백구」 전까지 염상섭의 소설에서 연애 서사와 이념 관련 서사는 병렬적으로 구성되었다. 「사랑과 죄」에서 지순영과 이해춘의 연애는 김호연의 거사 계획과 교직된다. 「삼대」에서 필순에 대한 조덕기의 감정과 태도가 정리되는 과정도 김병화의 투쟁 계획과 나란히 진행된다. 연애와 이념을 서사의 면에서 병행시키는 종전의 방법과 비교하여 「백구」의 구성은 이례적이다. 그 양자가 병행하지 않고 하나가 종료된 이후 다른 하나가 개시되는 형태이다. 염상섭은 애초에 온전한 연애소설을 쓰고자 했으나 원랑의 혼사 이후 서사의 진행이 여의치 않자 종전의 타성인 이념 관련 서사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전반부에 후반부를 이어 붙인 결과 「백구」는 구조적인 면에서 취약성을 지니게 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비판된 바와 같이 「백구」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이질적이다. 후반부의 서사는 영식이 길에서 우연히 혜숙을 만나고 그녀와 동행인 유경호가 대뜸 '굉장한 계획'에 참가할 것을

영식에게 권하면서 개시된다. 후반부로 전개될 만한 계기가 전반부에 부재하여 우연이 동원된 것이다. 우연으로 접속되어야 할 만큼 「백구」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이질적이다. 작중인물들의 성격도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서 일관되지 않는다. 이름에 의해 그들의 동일성에 의해 확인되는 정도이다. 전반부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적극적이던 원랑은 후반부에서 수동적인 인물로 변모하여 경호 일당이 벌이는 범죄에 무기력하게 희생된다. 영식의 변신도 원랑 못지않다. 원랑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던 영식은 춘홍에게 쉽게 이끌린다. 춘홍이 기생 신분이고 형식의 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녀에 대한 영식의 태도는 그가 이전에 원랑을 대하던 태도와 괴리된다. 영식이 원랑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체면과 교사라는 자신의 신분이었다. 세속적인 타산에 밝은 혜숙이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경호 일당의 범죄 모의에 가담하는 사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호를 앞두고 조롱하던 혜숙이 경호의 하수인이 되는 전개는 돌변에 가깝다. 영식을 짝사랑하던 경애가 영식을 헐박하여 범죄로 유인하는 진행도 억지스럽다. 추리소설의 범죄 서사 부분처럼 전개되는 「백구」 후반부의 서사에서 인물들이 주범과 공범, 피해자 같은 기능적 존재가 됨에 따라 이전의 연애 서사에서 설정된 성격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백구」의 후반부 서사는 경호 일당이 형식의 돈을 갈취하는 과정이 추리적으로 진행된다. 경호 일당의 정체는 작중에 명시되지 않고 사회주의자 집단을 연상하도록 모호하게 암시된다. 그래서 경호 일당의 정체가 선행연구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다. 「백구」에서 통속성 이상의 의의를 읽어 내려는 연구 차원의 기대가 반영된 논란이었다. 경호 일당이 사회주의자들이라는 견해와 사회주의를 빙자한 사기 집단이라는 견해가 대립했다.¹¹⁾

11) 김병구는 경호 일당의 활동을 두고서 “사회주의자들의 범죄성을 문제화함으로써 그것이 표상하는 사회주의 이념의 한계를 비판하고자 하는 데 서사적 기획의 근원성이 있다고 하겠다.”고 했다. 김병구, 「염상섭 장편소설 「백구」의 정치시학적 고찰」, 앞의 글, 277면.

사회주의자는 항일 의지의 표현으로, 사기 집단은 세태의 재현으로 각각 해석되었다. 양자 모두 가능하다는 절충적인 견해도 제출되었다.¹²⁾ 경호 일당의 정체에 관한 논란은 그 논란의 소지가 「백구」 본문 안에 있어서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경호 일당의 정체를 규정하기보다 그와 관련한 논란을 빚은 경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념과 관련한 주제를 추리적인 서사로 처리하는 방법이 「사랑과 죄」에서 「무화과」까지 염상섭의 소설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다. 그 방법의 사용은 일체의 검열과 긴장 관계를 피할 수 없었고 검열의 수준이 높아지자 허락되지 않았다. 염상섭은 당대 검열의 수준을 의식하고서 애초에 「백구」를 온전한 연애소설로 기획했지만 그 실천이 여의치 않았다. 연애 서사를 진전시킬 여지가 고갈되었고 「백구」를 후반부로 연장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했다. 그 대안으로 이념 관련 서사가 고려되었지만 종전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사회주의자의 존재를 명시할 수 없었고 그들의 활동도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없었다. 경호 일당의 정체가 작중에서 미결정 상태에 머문 탓에 그들에 대한 해석에 연구자의 기대가 투사될 수밖에 없었고 서로 다른 기대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낳았다.

서사의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경호 일당이 벌인 일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경호 일당이 탈취한 형식의 돈이 부정한 방식으로 획득된 것이라고 해서 그들의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경호가 「사랑과 죄」의 호연이나 「삼대」의 병화, 「무화과」의 동욱과 등치될 만한 인물이 되려면 형식에게 탈취한 돈의 용처까지 서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랑과 죄」에서 해춘이 최진국에게 인삼값으로 치른 돈이 평양에서 벌어진 모종의 사건에 쓰인다. 「삼대」에서 피혁이 국내에 잠입하여 병화에게 건넨 돈은 산해진의 개업 자금이 된다. 「무화과」에서 원영이 전한 돈

12) 최주한은 경호 일당의 정체와 관련한 혼선은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이라서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를 빙자한 범죄 집단 양자가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다. 최주한, 「일상화된 식민주의와 〈범죄〉의 서사」, 『어문연구』 31-4, 어문연구학회, 2003.12, 293-296면.

이 사회주의자들의 조일사진관 인수 자금으로 쓰인다. 그 세 작품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돈의 이동은 일경의 수사와 추적을 받는 범죄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일제의 사법 체계를 초월하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백구」에서는 경호 일당이 형식으로부터 탈취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경호 일당의 범행 과정만으로는 일제의 사법 체계를 초월하는 의의가 획득되지 않는다.

경호 일당의 정체가 분명치 않고 그들이 벌인 일이 시대적 의의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추리적으로 전개되는 서사만 두드러진다. 추리는 「진주는 주었으나」부터 염상섭의 신문 연재소설에서 빠짐없이 사용된 구성 방식이었다. 추리는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독자의 흥미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지만 절제되지 않을 경우 작품을 아예 추리물로 변경하는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그 부작용이 「백구」의 후반부에 나타난다. 경호 일당의 정체가 분명치 않다는 것은 추리가 복무해야 할 주제가 막연한 상태를 의미한다. 주제를 통해 관리되지 못하는 추리는 서사를 장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추리에 고유하게 내장된 통속화의 가능성이 발현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백구」 전반부의 연애 서사는 염상섭이 고수한 사실성의 원칙에 의해 통속화가 저지된다. 그러나 그 후반부에서 추리라는 우회로를 통해 통속화의 길로 접어든다.

3. 「모란꽃 필 때」, 현실적 이해로서의 연애

「백구」에서 원랑은 매매혼으로 내몰린 절박한 처지에서 연애의 성취를 위해 고투한다. 원랑에게 영식과의 도피는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일종의 도박이지만 연인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감행될 수 있다. 원랑이 연애를 낭만적으로 이상화하는 데 반해 영식에게 연애는 현실이다. 영식이 원랑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연애에 대한 둘 사이의

입장 차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리된다. 염상섭이 「백구」를 쓰면서 겪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란꽃 필 때」의 연애 서사를 설정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백구」의 연애 서사는 낭만적 이상화로 도약하는 지점까지 세 차례나 진행했다가 번번이 후퇴했다. 염상섭의 사실주의가 그러한 도약을 용납하지 않았다. 「모란꽃 필 때」에서는 애초부터 현실적 이해관계가 연애 서사의 설정에 전제된다. 낭만적 이상화의 연애관과 현실적 이해의 연애관이 충돌하는 곤란한 사태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래서 「모란꽃 필 때」에는 원랑처럼 연애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연애 관계로 엮인 인물들 중 그 누구도 연애의 실현을 위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 「모란꽃 필 때」의 연애 서사는 연애에 대한 낭만적 이상화가 소거된 상태에서 전개된다.

연애를 이상화하는 사유에서 연애 이외의 것들은 연애를 위한 제물로 여겨진다. 연애가 최고의 가치이므로 다른 것들은 연애의 실현을 위해 복무하거나 희생해야 한다. 연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연애를 위해 명예를 버리고 연애를 위해 가족과 조국을 배반한다는 주장이 얼마든지 성립된다. 그런데 연애가 이상에서 현실로 내려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연애는 현실의 척도로 저울질 되고 다른 가치들과 비교된다. 개인의 내면에서 샘솟는 연애 감정은 연애를 성립시키는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그 감정의 순도가 연애를 추진하기 위한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애의 실현 가능성이 타진되어야 하고 연애에 치러야 할 대가도 계산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연애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투기나 거래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어 이타적인 면 못지않게 이기적인 면도 그 당사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연애의 성과가 추정되고 자존심과 관련한 감정적 손익이 계산되어 연애는 전략적인 과정이 된다. 현실적 이해를 전제한 「모란꽃 필 때」의 연애 사건들이 바로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모란꽃 필 때」의 연애 서사가 현실적인 이해를 전제하고 있음을 뚜렷

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진호이다. 진호는 자신의 개인전에 구경 온 신성에게 반하여 구애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에 열정적으로 표현된 진호의 감정은 신성의 동정을 받을 만큼 순수하다. 그런데 신성이 영식과 약혼한 사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 후 진호는 신성을 향한 구애를 중단한다. 진호가 연애를 낭만적으로 이상화했다면 그의 구애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약혼녀라는 신성의 신분은 극복해야 할 현실적 장애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현실적 장애 앞에서 진호는 신성을 향한 감정을 접는다. 신성을 단념하는 일이 진호에게 주체하기 어려운 고통이 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안으로 삭일 뿐이다. 현실적인 이해를 전제한 진호의 연애관이 그에게 신성을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

신성과 영식의 약혼은 그들의 부친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부친들은 동종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일찍이 신성의 부친은 영식의 부친이 사업가로 자립하도록 도왔다. 따라서 신성과 영식의 약혼은 사업적인 거래에 가깝다. 신성과 영식의 연애는 약혼을 보완하는 추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들은 서로 편지를 보내고 만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둘에게 연애의 감정이 형성되지만 그 감정의 순도는 부친들 사이의 거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사업적 이해관계로 그들의 부친이 소원해지자 신성과 영식의 약혼도 유지되지 못한다. 신성과 영식이 연애 감정으로 서로에게 결속되었다면 부친들의 사정과 무관하게 약혼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자의 유혹에 사로잡힌 영식은 신성과의 약혼이 깨지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수수방관한다. 오히려 영식은 신성이 진호의 편지를 보관한 사실을 들면서 파혼의 책임을 신성에게 전가한다. 영식은 신성의 계약 불이행을 파혼의 빌미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약혼이 두 집안 간의 거래였음을 재확인한다. 신성에게도 영식과의 약혼은 부친들 간의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영식을 대한 신성의 연애 감정은 그녀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것이 아니라 약혼에 내포된 당위적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신성에게 파혼은 실연의 의미보다 자존심의 문제로 여겨

진다. 아는 이들 사이에서 약혼녀로 소문이 난 상태에서 파혼이 된 것이 여자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평소 경쟁 관계이던 문자에게 영식을 빼앗긴 격이어서 수치심은 배가된다. 것처럼 자존심을 크게 다쳐서 신성은 슬퍼하고 절망한다.

문자는 연애를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문자가 단순히 신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허영심에서 영식을 유혹한 것은 아니다. 일본 유학을 원하는 문자로서는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계획적으로 영식에게 접근한다. 신성과 영식의 파혼을 부른 진호의 편지도 애초에 문자가 의도한 것이다. 문자는 신성이 약혼녀라는 사실을 진호에게 은폐함으로써 진호가 신성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방조한다. 문자는 계획한 대로 영식과 동반하여 일본으로 가는데 영식의 효용은 거기까지이다. 일본에서 문자는 영식의 아내로서 저야 할 의무와 책임을 버려둔 채 자신만의 향락을 좇는다. 무도장을 출입하고 영식이 다니는 회사 소유주의 아들인 삼포 청년과 연인처럼 지낸다. 문자는 삼포 청년 모르게 하이디라는 서양 청년을 사귀기도 한다. 문자의 남성 편력은 그녀에게 연애가 삶을 향락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 문자는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애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뿐이어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연애 상대를 바꿀 수 있다. 결혼은 그런 문자를 구속하지 못한다.

필요에 따라 연애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자에 비하면 신성은 연애에 대해 무지에 가까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신성이 비록 「모란꽃 필 때」에 설정된 연애 관계의 한 꼭짓점을 점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연애의 주체로서 느끼고 행동하는 시점은 작품의 중반부이다. 그전까지 연애는 신성에게 직접적인 삶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영식과의 연애는 약혼에 부수된 후속 절차에 불과하다. 그래서 파혼도 신성에게 실연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파혼 후 신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실연보다는 명예의 실추에서 비롯된 것이다. 파혼이 자존심에 입힌 상처는 신성에게 자기 인식의 계기가 된다. 가문의 파산과 부친의 죽음을 겪으면서

신성은 한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신성은 동경으로 건너가 사범학교에 진학한 후 고학생으로 지낸다. 자기 성취를 위한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 인생과 세상에 대한 신성의 이해는 성숙한다. 연애에 대한 신성의 생각과 태도도 그 성숙의 일부를 이룬다. 연애와 관련하여 신성은 더이상 타인의 선택에 좌우되지 않는다. 신성은 영식의 재결합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진호에 대해서도 대등한 입장을 취한다. 신성은 진호가 화가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진호는 신성이 교육자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데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생의 동반자가 되려 한다. 연애에 관한 한 신성은 무지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탐색의 과정을 거쳐서 그 나름의 이해에 이른다. 신성의 탐색과 결부되어 진행된 영식의 변화도 주목될 만하다. 정구시합에서 본 문자의 모습은 영식에게 “반나체의 곡선미와 울동미”¹³⁾로 떠오른다. 문자의 관능적인 매력에 유혹된 영식에게 신성은 그저 평범한 여자로 보일 뿐이다. 것처럼 애욕의 수준에 머문 영식의 연애관은 동경에서 문자의 자유분방한 일탈을 겪으면서 변화한다. 신성에 대한 영식의 사죄에서 그 변화가 읽힌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연애를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영식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모란꽃 필 때」는 현실적 이해를 전제로 설정된 연애 서사를 통해 당대 젊은이들의 연애 풍속을 그리면서 바람직한 연애의 방향을 제시한다. 연애에 대한 신성의 탐색이 바로 그 방향으로 진행된다. 작중에서 적대적인 경쟁 관계인 신성과 문자는 도덕적인 면에서 뚜렷하게 대조된다. 문자는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략과 기만을 서슴지 않는다. 신성은 문자로 인해 억울한 오해를 받고 손해를 입어도 문자처럼 처신하지 않는다. 신성은 양심에 거리낄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인 원칙을 준수한다. 것처럼 신성과 문자는 도덕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선과 악으로 갈리고 둘

13) 염상섭, 『염상섭 전집』 5, 민음사, 1987, 123면.

의 경쟁은 선악의 대결로 파악된다. 그 대결에서 문자가 몰락하고 신성이 승리함으로써 「모란꽃 필 때」의 연애 서사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현실적 이해를 전제로 설정된 연애 서사에 권선징악의 의미가 담긴 데에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염상섭의 신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들 선과 같은 본질적 가치는 옹호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염상섭은 소설 창작을 통해 견지했다. 권선징악은 대중의 도덕 감정에 부합하는 주제여서 통속소설에서 흔히 채택된다. 「모란꽃 필 때」는 그 주제를 당대 젊은이들의 연애 풍속에 담아냄으로써 대중적 설득력과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

주제와 관련하여 진호가 화가로 설정된 점도 거론되어야 한다. 예술의 목적인 미는 선에 버금가는 본질적 가치이다. 궁핍한 중에도 화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진호가 신성과 맺어지는 전개는 본질적 가치를 긍정한다는 면에서 주제를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작중에서 예술에 관한 사유는 연애 서사처럼 현실적 이해를 전제한다. “환쟁이도 냉수를 마시고 이만 쭈시고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림이 팔려야 하겠다.”¹⁴⁾는 추수 화백의 말에서 그러한 현실 감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술 활동을 위해 경제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추수 화백의 생각은 김동인이 「광염소나타」에서 표명한 예술지상주의와 현격한 차이를 둔다. 연애 서사가 현실적 이해를 전제함으로써 연애에 대한 낭만적 이상화를 배격한 것처럼 현실 생활에 근거한 예술은 예술지상주의를 경계한다. 예술은 염상섭의 이전 소설에서 이념이 차지한 자리를 대체하는 의의도 있다. 염상섭은 「무화과」까지 연애로 통속적인 요청에 부응하면서 이념으로 본격소설로서의 가치를 추구했다. 그러나 검열의 강화로 이념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소설 쓰기의 대상으로 연애만 남게 된다. 「백구」에서 시도된 연애소설 쓰기는 염상섭의 사실주의적 자의식에 의해 중도에 저지된다. 좌초된

14) 위의 책, 253면.

연애 서사의 뒤는 종전의 관성대로 이념과 관련된 서사가 있다. 그러나 「무화과」까지 유지된 기조로 온전히 회귀하지 못하는 탓에 사회주의자 대신 사회주의자를 빙자한 사기단이 등장한다. 「모란꽃 필 때」에는 그런 사기단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화가를 등장시킴으로써 주제의 면에서 이념이 하던 기능을 예술이 맡게 된다. 진호의 그림에 대한 열정이나 추수 화백의 동서양의 미에 대한 논설은 권선징악으로 귀결되는 연애 서사의 통속성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 그러나 예술로는 사회주의 진영의 항일 투쟁 정도의 시대적 의의를 획득하기에 미흡하여 통속성을 분석하는 수준에 그친다.

4. 「불연속선」, 통속 연애소설의 완성

「백구」는 연애 서사를 위한 설정으로 시작하여 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반부에서 궤도를 변경한다. 연애 서사는 중단되고 경호 일당의 범주를 추리적으로 다룬 서사가 그 뒤를 잇는다. 「모란꽃 필 때」는 남녀 주인공의 연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단계에 이르러 끝난다. 신성과 진호는 작품의 중반부에서 연인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 낯선 남녀가 만나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이 연애 서사의 한 유형일 수 있다. 그런데 신성과 진호의 관계가 그러한 유형에 들기에는 미흡하다. 신성이 영식과 파혼하고 영식과 문자의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자 거기에 부수된 결과로서 신성과 진호에게 연인 관계가 허락되는 격이다. 그전까지 신성에게 진호는 연애의 대상으로 인지되지 않았다. 영식이 파혼을 요구하는 빌미가 된 구애 편지를 보낸 진호에 대해 신성은 막연한 호기심 정도를 품었다. 「모란꽃 필 때」의 막바지에서 신성과 진호는 잠깐 갈등을 벌이면서 서로의 존재를 연인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들의 연애는 아직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향후 그들이 겪을 연애의 사건들을 고

려하면 「모란꽃 필 때」는 연애 서사의 출발선에 비로소 도달하여 끝난 셈이다.

연애 서사는 「백구」에서 중단되고 「모란꽃 필 때」에서는 출발 단계에 이르러 끝난다. 「불연속선」은 연애 서사를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백구」나 「모란꽃 필 때」에 비해 연애소설로서 높은 완성도를 이룬다. 연애에 집중함으로써 「불연속선」은 전작들에 대해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 연애 외에 이념이나 그것을 대체하는 주제가 아예 배제된다. 송경희의 옛 애인이 사회주의자로 설정되었으나 송경희와 김진수 사이에 전개되는 연애 서사에서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 강종묵은 종전의 방법에 대한 염상섭의 미련을 나타낼 뿐이다. 김진수가 도입하여 고학으로 삼등 비행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내력은 이상을 향한 낭만적 동경을 내포하고 있어서 「모란꽃 필 때」의 예술에 대응될 만하지만 김진수의 성격 형상화나 서사의 진행에서 그 어떤 구실을 하지 못한다. 「모란꽃 필 때」에서 진호가 화가로서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가 서사의 일부를 이루는 데 비해 「불연속선」에서 김진수가 지닌 비행사의 꿈은 뒷전에 밀려나 있다. 비행사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가 구체화할 여지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불연속선」의 연애 서사는 「모란꽃 필 때」보다 더 현실적이다. 사회주의자 강종묵이나 비행사 김진수는 「불연속선」에서 잉여적 설정에 머물게 된다.

「불연속선」은 「백구」와 「모란꽃 필 때」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연애라는 단일 주제를 서사로 구현한다. 「불연속선」에서 진수와 경희의 연애를 가로막는 장애는 「백구」나 「모란꽃 필 때」만큼 심각하지 않다.¹⁵⁾ 게다가 그들에게는 재력이 있어서 연애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든든한 무기가 되어 준다. 부유한 상속녀인 경희는 다방 ‘폼페이’를 운영하여 부를 축적한다.

15)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이해를 인용한다. “「불연속선」에는 내세울 만한 사랑의 경쟁자나 강력한 반대와 같은 외부적 방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랑은 이제 외부적 조건이나 제도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개인과 개인이라는 차원으로 변화한다.” 김문정, 앞의 글, 181면.

도입부에서 가난한 운전사로 등장한 진수는 부친의 금광 매도가 성공하여 졸부의 아들로 처지가 급변한다. 「백구」와 「모란꽃 필 때」의 연애가 가난으로 좌절되거나 유보되는 데 비해 경희와 진수의 연애는 그와 정반대되는 유복한 조건을 전제한다. 그들이 연애에서 당면하는 장애도 충분히 대처하고 극복할 만한 정도로 수위가 조절된다. 반대자 역의 최영호와 이창식은 「백구」의 이형식이나 「모란꽃 필 때」의 문자만큼 위협적이지 않다. 「불연속선」에서 영호는 속셈이 뻔히 읽히는 휘방꾼에 불과하고 창식의 협박도 미수에 그친다. 그래서 “「불연속선」이 …(중략)… 애정을 소설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에도 주인공들을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는, 「이심」이나 「모란꽃 필 때」 같은 작가의 가학 취미도 나타나지 않는다.”¹⁶⁾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설정의 면에서 유리한 조건들을 갖춘 「불연속선」의 연애 서사는 청춘 남녀의 만남으로 시작하여 그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연애의 여러 과정을 흥미롭게 전개한다. 택시 운전자 진수와 승객인 경희와 영호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다. 병실에 홀로 누운 진수를 동정하여 경희는 그에게 과일을 사 보낸다. 진수는 경희의 호의에 감사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호감을 표한다. 그런 식으로 경희와 진수는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선별하여 연애의 관계로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는다. 그 과정은 이중의 탐문으로 이루어진다. 상대로 인해 내 마음에 출현한 감정의 정체를 확인하는 한편 나에게 대한 상대의 감정을 확인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의 형태는 간단하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나 그 간단한 질문은 단번에 해소되지 않는다. 내 마음을 확인해도 상대에게 그 마음을 확인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 나에게 대한 상대의 마음을 아는 일은 더욱 어렵다. 확인의 강박은 새로운 불안과 의심을 부르고 질문이 거듭 제기된다. 종전

16)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220면.

의 답변이 전제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나와 상대의 진심이 새로이 추궁된다. 진정, 진짜, 정말 같은 말들이 삽입되는 방식으로 앞의 두 질문이 수정된다. 나는 진정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은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 거듭 새로이 제기되는 질문이 더 분명한 확인을 요구하므로 연애로 접어든 사람들은 계속 만나야 한다. 경상을 입어 먼저 퇴원한 경희는 통원 치료의 마지막 날 진수의 병실로 꽃을 사 들고 찾아간다. 진수는 퇴원 후 경희에게 답례의 인사를 한다는 핑계로 초콜릿 상자를 들고 폼페이로 경희를 찾아간다. 부호의 아들로 급변한 진수의 처지가 경희에게 의식된다. 돈 때문에 진수에게 접근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경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진수는 전보다 냉랭한 경희의 태도가 자신의 달라진 형편과 무관치 않다고 짐작한다. 진수는 경희의 앨범에서 강종목의 사진을 본 후 경희의 마음을 의심하게 된다. 진수로서는 경희의 진심도 궁극하지만 경희를 의심하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도 회의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정도의 의심은 이겨내야 한다. 진수의 돈과 경희의 과거는 그들 서로에게 진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의 연애가 발전하려면 서로를 향한 마음이 돈과 과거에 구애받지 않는 진심이라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진수와 경희의 만남은 계속된다. 함께 식사하기와 산책하기와 다방에서 차 마시기는 필수적인 순서로 그 만남에 포함된다. 남녀가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는 전형적인 과정을 그들도 밟는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신경전이 펼쳐진다. 진수의 돈을 축출하고 경희의 과거를 극복하는 진심이 있어야 그들의 연애가 성사될 수 있다. 그러던 중 위기가 찾아온다. 부친이 정한 다른 혼처가 있으니 진수를 단념하라고 진수의 서모인 송도집이 경희에게 권고한다. 경희는 이별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내고 진수를 피한다. 경희와 어렵게 재회한 자리에서 진수는 자신의 믿음을 거론하며 경희를 설득한다. 진수가 믿음을 근거로 자신의 진심을 주장하고 이후 경희와 믿음에 관해 토론하는 장면이 낱설지 않다. 주제에

해당하는 의미를 서술자나 작중인물의 논설을 통해 직접 표명하는 방법을 염상섭은 일찍부터 애용했다. “누가 무어라든지 경희 씨를 믿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거”¹⁷⁾라는 진수의 다짐에 경희는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첫 조건”¹⁸⁾이라고 화답한다. 그들의 진심은 믿음이 보장하기에 경희는 진수의 돈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진수는 경희의 과거를 궁금해할 이유도 없어진다. 서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연인 사이가 된 그들은 종전보다 은밀한 만남으로 친밀도를 높인다. 경희는 심야에 자신의 방에 진수를 들이고 둘이 함께 평양으로 밀월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영호는 진수의 매부가 됨으로써 방해자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다. 애초부터 영호의 방해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진수와 경희가 영호를 따돌리는 과정이 서사적 흥미를 자아내는 정도였다. 창식이 진수에게 경희의 과거를 발설한다면 진수와 경희의 관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그러나 창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사라짐으로써 그 위협도 제거된다. 영호와 창식이 비운 방해자의 자리를 진수의 부친인 김 참의가 이어받는다. 그는 이 변호사와 혼약을 맺음으로써 진수와 경희가 결혼에 이르는 길에 넘어야 할 장애로서 새로이 등장한다. 진수는 이 변호사의 딸인 경옥과 맺은 정혼을 피하기 위해 경희와 함께 동경으로 유학 갈 계획을 세운다. 김 참의는 진수의 일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진수의 유학길에 누이동생인 정숙과 정혼녀인 경옥을 딸려 보낸다. 동경에서 진수와 경희는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정숙과 경옥은 다른 거처에서 지내게 한다. 진수의 정혼녀로서 경옥의 존재가 진수와 경희에게 의식되지 않을 수 없어서 둘은 마찰을 빚는다. 경희로서는 경옥이 애정의 전선에 등장한 경쟁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진수는 정혼녀를 가까이 둔 처지여서 변함없는 애정으로 경희의 의심을 불식해야 하는 가외의 부담을 지게 된다. 부친의 자애와 기대도 진수로서는 저버리기 어렵다. 진수는 부친과 경희 사이에서 한쪽

17) 염상섭, 『불연속선』, 프레스21, 1997, 204면.

18) 위의 책, 205면.

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진수가 경희에게 역설했던 믿음이 비로소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그러나 그 시험의 상황은 진수의 선택이 아닌 김 참의의 죽음으로 종료된다. 영호와 창식이 물러났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김 참의는 방해자의 역할을 내려놓는다. 김 참의의 죽음은 경옥의 퇴진을 동반한다. 거의 탕진된 김 참의의 재산 상태를 알게 된 이 변호사는 경옥과 진수의 혼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김 참의가 죽고 경옥이 물러남으로써 진수와 경희의 결혼은 온전히 둘 사이의 문제가 된다. 부친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진수는 경희와 다툰다. 진수와 경희는 귀국한 이후 소원하게 지낸다. 진수는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산을 어머니와 여동생들과 나눈 후 동경으로 향한다. 진수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어 이튿날 정거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그 약속이 유보 상태이던 진수의 믿음을 결과적으로 입증한다.

「불연속선」은 낯선 남녀가 우연히 만나 연인으로 사귀면서 겪는 과정이 풍부한 사건들을 통해 펼쳐진다는 점에서 연애소설의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진수와 경희가 서로의 진심을 두고 벌이는 갈등이 둘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봉합되고 그들이 주변 인물들의 방해로 넘어 결혼으로 향하는 진행은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갈등과 방해는 서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정도로 그 수위가 조절되어 행복한 결말을 예비한다. 충실하게 재현된 현실의 면모들은 연애 서사에 실감을 마련한다. 경성제대 법문과 졸업생인 영호는 “마땅한 직업이 없이 경성의 거리를 활보하며 시간 여행을 지속할 뿐”¹⁹⁾인 실업자들 중 하나이다. 김 참의의 부침은 “황금광 시대의 명암을 잘 보여”²⁰⁾주며 “김 참의가 소유한 ‘돈’의 상속을 둘러싼 김진수의 가족,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몰화된 욕망”²¹⁾은 돈의 위력에 좌우되는 세대와 연결된다. 수감 중인 강종묵은

19) 박윤영, 「염상섭 「불연속선」 연구」, 『한국어와 문화』 16,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4.8, 94면.

20) 위의 글, 99면.

식민지 저항 운동의 현 상태를 환기한다. 그러한 면들은 식민지의 현실을 재현하는 의의를 지니지만 그 의의를 작품 전체로 확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나의 작품은 부분들의 유기적인 관계로 성립된다. 어떤 특정 부분의 가치는 그것의 작품 내적인 비중에 맞추어 파악되어야 한다. 「불연속선」은 진수와 경희의 연애가 중심 서사를 이루고 다른 인물들의 삽화가 그 주위에 배치되는 양상으로 구성된다. 작중에 재현된 당대 현실은 그 중심 서사에 대해 부수적인 위치여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이 진수와 경희의 연애를 초과하는 가치를 지니기 어렵다. 「불연속선」에 재현된 현실은 연애 서사의 실감에 이바지하는 정도로 제한된다. 진수와 경희의 연애는 객관적으로 재현된 당대 현실을 배경에 뒀으로써 개연성을 획득하며 그 현실의 타락상과 대조됨으로써 진정성을 획득한다. 현실의 재현이 연애 서사에 복무하는 수준에 제한됨으로써 「불연속선」은 염상섭이 종전에 발표한 사실주의 소설과 구별되는 통속소설에 머물게 된다.

5. 결론

신문 연재의 방식으로 발표된 염상섭의 소설은 통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통속성을 고려하면서 식민지 현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려 했다. 그로써 한 작품 안에 통속소설의 경향과 본격소설의 경향이 동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속적인 요청에 부응하면서 본격소설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방법적 기조는 「무화과」까지 유지되었다. 일제의 검열로 이념 관련 주제룰 다룰 수 없게 되자 그에게 통속소설을 쓰는 일만 허락되었다.

염상섭은 「무화과」 이후 들어선 통속화의 길에서 「백구」와 「모란꽃 필

21) 김병구, 「염상섭 장편소설 「불연속선」 연구」, 앞의 글, 211면.

때」와 「불연속선」을 차례로 썼다. 종진과 마찬가지로 그 세 편도 연애 서사를 통해 통속성을 추구했으나 성취의 면에서 서로 차이를 드러냈다. 「백구」의 연애 서사는 통속적인 진행을 앞두고 저지된다. 사실주의자를 고수하려는 작가의 자의식이 연애에 대한 낭만적 이상화를 용인하지 않은 것이다. 중단된 연애 서사는 추리 서사로 연장되고 그 결과 「백구」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질적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게 된다. 「백구」의 시행착오가 「모란꽃 필 때」의 서사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듯하다. 「모란꽃 필 때」에서 연애는 낭만적인 이상화의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로 다뤄진다.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연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연애가 욕망 충족의 수단이 된다. 당대 젊은이들의 연애 풍속을 통해 바람직한 연애의 방향이 모색된다. 남녀 주인공이 바로 그 방향의 출발선에 도달하면서 작품은 끝난다. 「모란꽃 필 때」에서 출발선에 이른 연인들의 연애 서사가 「불연속선」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불연속선」의 연애 서사는 청춘 남녀의 만남으로 시작하여 그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연애의 여러 과정을 흥미롭게 전개한다. 갈등이나 오해는 적절한 선에서 해소되고 위기는 수월하게 극복되면서 서사는 행복한 결말로 향한다. 통속적인 기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된 것이다.

염상섭은 「불연속선」에서 통속소설로서 높은 완성도를 성취한 후 소설을 더 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듯하다. 그에게 통속성은 수단이자 전략이었다. 전적으로 통속성을 목표로 삼은 소설 쓰기의 성취가 그에게 만족스러울 수 없었을 것이다. 「불연속선」 이후 그는 소설 쓰기를 중단하고 만주로 갔다.²²⁾

22) 염상섭은 「불연속선」의 연재 종료 후 만선일보의 편집국장직을 제안받고서 만주로 갔다. 그 제안에는 문필 활동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었고 재직 중에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만선일보에서 퇴직한 후 그는 동지에 「개동」을 연재하다가 중단했고 그 작품의 원고를 해방 후 귀국길에서 분실했다. 재만 기간 중 그는 소설가로서 절필 상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김중근, 『염상섭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35-37면.

| 참고문헌 |

1. 자료

염상섭, 『염상섭 전집』 5, 민음사, 1987.

염상섭, 『불연속선』, 김경수 편, 프레스 21, 1997

염상섭, 『염상섭 문장전집』 1, 한기형·이혜령 편, 소명출판사, 2013.

2. 논문과 저서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김문정, 「『불연속선』에 나타난 사랑의 서사와 풍속」, 『한국문예비평연구』 2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171-186면.

김병구, 「염상섭 장편소설 「백구」의 정치시학적 특성 고찰」, 『국어문학』 58, 국어문학회, 2015.2: 265-290면.

김병구, 「염상섭 장편소설 「불연속선」 연구」, 『우리문학연구』 45, 2015.1: 199-227면.

김승민, 「염상섭 「모란꽃 필 때」 연구」, 『현대문학이론』 6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12: 59-90면.

김용희, 「염상섭 소설의 도시인식」, 『어문연구』 31-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12: 207-234면.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김종균, 『염상섭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박윤영, 「염상섭 「불연속선」 연구」, 『한국어와 문화』 16,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4.8: 79-105면.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유봉희, 「염상섭 장편 「모란꽃 필 때」 연구」, 『어문논총』 20,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9.8: 139-171면.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최주한, 「일상화된 식민주의와 〈범죄〉의 서사」, 『어문연구』 31-4, 어문연구학회, 2003.12: 283-299면.

<Abstract>

The Path of Popularization

Kang, Hun-Kook

This thesis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Yeom Sang-seop's novel after *Fig*. Yeom Sang-seop's novel, published in a newspaper series, tried to objectively reproduce the colonial reality while considering popularity. As a result, a phenomenon in which the tendency of popular novel and the tendency of literary novel coexist in one work. The method of pursuing the literary value while responding to popular request was maintained until *Fig*. As Japanese censorship prevented him from dealing with ideological theme, only writing popular novels was allowed.

Yeom Sang-seop wrote *White Pigeon*, *When Peony Blossoms Bloom* and *Discontinuity Line* in turn on the path of popularization after *Fig*. As before, those three also pursued popularity through love narratives, but they revealed differences in terms of achievement. The love narrative of *White Pigeon* is blocked ahead of the popular progression. The artist's self-consciousness to adhere to realism did not tolerate romantic idealization of love. The failure of *White Pigeon* seems to have influenced the setting of the narrative of *When Peony Blossoms Bloom*. In *When Peony Blossoms Bloom*, love is thoroughly treated as a matter of reality, with the possibility of romantic idealization completely excluded. Through the process of selfish desires crossing and colliding, a desirable direction of relationship is sought, and the work ends when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reach the starting line in that direction. The love narrative which reached the starting line at the end of *When Peony*

Blossoms Bloom unfolds in earnest in *Discontinuity Line*. The love narrative of *Discontinuity Line* begins with a meeting between a young man and woman, and develops interestingly the various processes of love that can take place between them. Conflicts and misunderstandings are resolved at the right line, and the crisis is easily overcome, and the narrative turns to a happy ending. The narrative proceeded in a direction that satisfies popular expectations. In the synonymously arranged *White Pigeon*, *When Peony Blossoms Bloom* and *Discontinuity Line*, the process of Yeom Sang-seop's inability to make a soft landing in popular novels is understood. In terms of time, the later the work is published, the clearer the aspect as a popular novel becomes. *White Pigeon* was insufficient not only as a literary novel, but also as a popular novel. *When Peony Bloom* was more like a popular novel, and *Discontinuity Line* reached a complete popular novel.

Yeom Sang-seop did not seem to find a reason to write more novels after achieving a high degree of completion as a popular novel in *Discontinuity Line*. For him, popularity was a means and strategy. The achievement of writing a novel entirely aimed at popularity could not have been satisfactory to him. After *Discontinuity Line*, he stopped writing novels and went to Manchuria.

Key words: censorship, *Discontinuity Line*, popularity, popular novel, *When Peony Blossoms Bloom*, *White Pigeon*, Yeom Sang-seop

투 고 일: 2024년 8월 21일

심 사 일: 2024년 9월 11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1일

수정마감일: 2024년 9월 25일